

토착적 건축현상으로서 교우마을에 대한 연구

- 전라북도 완주군 비봉면 천호마을을 중심으로 -

A Study on Catholic Villages as an Incultural Architecture Phenomenon

- Focusing on Chunho Village, Bibong-myun, Wanju-gun, Chounlabuk-do -

김학삼*

Kim HakSam*

진 정**

Jihn Jung**

Abstract

This study aims to give an architectural meaning to the process of change in villages formed to maintain the religious lives. We can draw the following conclusion by reviewing and analyzing primarily the details in relation to the bibliography and actually evaluating and analysing the current status of relevant villages secondly in order to understand the architectural meaning of Catholic village. The architectural image contained in physical architectural phenomenon displays the change in religious values while the social and cultural characters are responding to the architectural space of Cheonho Village, and this, as a cultural byproduct, is the architectural phenomenon that encompasses the process by which religion takes root in the farming society of Korea that reveals the change in value inherent in the community. The result from study that we conducted via the architectural space of Cheonho Village is interpreted as an architectural phenomenon that encompasses the religion as part of routine lives in a way that is different from the process of becoming in-cultural, and this can be interpreted to have a meaning and character as incultural architecture phenomenon.

Keywords : Gyou village, Gongso hall, religious community, Incultural Architecture Phenomenon

주 요 어 : 교우마을, 공소강당, 신앙공동체, 토착적 건축현상.

1.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Julia W. Robinson은 “문화매개체로서의 건축”에서 건축형태란 문화의 물리적 형태에 대한 직접적이면서 무의식적인 해석이며, 문화적인 욕구와 가치에 대한 표현과 개인의 주체성을 표현하는 것인 동시에 그 집단과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건축적 특징으로서 그리고, 거주자와 일체화되는 건축적 의미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듯이 주민들 스스로의 자족적인 활동과 필요에 의한 건설행위에는 그들의 기술수준이나 가치, 그리고 표현방식 등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러한 맥락에서 18세기 이후 천주교 신앙 활동이 기존 사회질서를 파괴한다고 인식한 정부의 박해를 피하여 산간벽지에 형성된 마을에서의 건축현상은 그 당시의 역사나 사회·문화의 산물로서 동시에 그들의 삶의 흔적이 담긴 건축공간으로 인식되어야 하고, 신앙공동체의 특성이나 건축현황을 정확하고 심층적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물리

적이고 형식적인 측면만이 아닌 신앙공동체에 내재된 질서와 건축공간사이의 관계로 파악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교우마을의 건축현상을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와 가치의 선택과정에 표출되는 것으로 보고 접근할 필요에서 시작한다.

교우마을에 나타난 건축현상은 신앙공동체에 내재된 가치가 건축적으로 대응한 양상이며, 기존문화와 서구문화의 결합, 그리고 근대화과정에 나타나는 사회변화 내용이 수용된 건축현상을 통하여 종교가 한국사회에 토착화되는 과정이 담겨지는 건축공간임을 규명함으로써, 교우마을의 건축공간이 갖는 의미와 성격을 부여하는데 연구 목적을 가진다.

1) Setha M. Low(1994), Housing, Culture and Design, 주거문화 연구회 역, 신광출판사, 서울, pp.263-282

2) 종교를 배경으로 이루어진 마을분류는 유교적 환경에서 형성된 동족촌, 사찰에 의지하여 형성된 사하촌, 개신교와 관련되어 형성된 선린촌 또는 신앙촌, 천주교신앙에 의한 교우마을, 모악산 주변의 중산교촌, 유사종교에 의하여 형성된 정감록촌 등으로 구분한다. 채기병(1993), 내포지방 천주교 교우마을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지리교육 전공, p.1.

*정회원, 광양보건대학, 건축과, 조교수

**정회원, 전북대학교 건축·도시공학부 교수, 공업기술연구소장

2. 연구대상 및 방법

한 장소는 그 장소가 가지는 사회·문화적, 역사적 맥락을 통해서 물리적 건조 환경이 갖는 의미를 이용자들에게 보여주며, 때로는 그 물리적 건조 환경이 이용자들의 행동방식까지 규정하는 특성을 갖고 있듯이 본 연구는 교우마을이 자연마을과는 다른 사회·문화적 배경에서 형성되었다는 측면과 초기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며, 평등적 인간관계의 사회 질서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기존 마을과는 다른 건축적 내용을 가질 것이라는 판단 하에서 연구대상으로 선택한 것이다.

동족마을이나 자연마을과는 다른 질서를 가질 것으로 파악되는 교우마을의 변화과정을 종교가 그 사회에 뿌리 내리는 건축현상으로 접근, 분석하기 위하여,

첫째, 교우마을에 대한 서지학적인 내용을 검토, 종합한다. 종합된 내용을 분석하여 일반적인 교우촌의 특징을 찾는다.

둘째, 사례조사는 현장연구를 중심으로 하며, 1차적으로 관찰과 면담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한다. 동시에 건축현황 자료로서 건축물의 실측을 통한 도면화 작업을 진행하며, 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한다. 주민에 대한 인터뷰를 통하여 얻은 자료는 보완적인 기초적 자료로 사용한다. 직접적인 자료의 하나로 현장사진을 촬영하고 수집된 사진을 분석하여 2차적 자료로 활용한다.

셋째, 천호마을 건축공간이 갖는 의미를 마을구성원의 종교적 가치규범이 갖는 위계 또는 마을공동체에 내재된 가치관의 변화가 물리적 건축현상으로 대응된 것으로 분석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II. 문헌 고찰

1. 교우마을에 내재된 사회·문화적 질서

유교적 사고방식이 지배하는 시대에 초기 교회 가르침을 따르며, 평등사상을 기초로 발생한 마을³⁾에 내재된 질서⁴⁾는 1. 신앙을 유지하기 위한 삶의 장소로서 2. 심리적 공포감을 완화시키는 은신처로서 “집단구성원이 되려는 욕구⁵⁾”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3.경제적 삶의 터전⁶⁾ 등의 사회질서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초기 교우촌은 경제적 평등관계를 바탕으로 공동노동, 공동생산, 공동분배가 이루어져 신분적으로나 성적으로도 평등적 인간관계가 유지되었으며, 평등적 인간관계를 갖는 교우촌은 친족개념이 확대, 심화되어 의례친족관계로

서 대부·대모관계, 그리고, 종교지도자로서 공소회장이 사회통합 역할 기능을 하는 것⁷⁾으로 나타난다.

"교우마을 내혼(Village endogamy)", 타교우촌과 통혼 현상은 "교우촌간의 혼인"⁸⁾형태로 이루어지며, 3대 이상이 천주교를 믿는 가계 신앙형태가 86%⁹⁾이며, 각성받이 마을¹⁰⁾로 나타난다.

부가적으로 내재된 질서는 미사와 선교사를 위한 새로운 음식 문화보급과 聖召 보급에 따른 서구적 문화가 유입되었으며, 또 다른 기능으로서는 빈민구제활동¹¹⁾이 있다.

천주교 의례와 전례를 따르는 교우마을을 조선후기의 동족마을¹²⁾이나 자연마을¹³⁾에 내재된 질서와 비교하면 <표 1>과 같이 분류된다.

표 1. 전통적 마을과 교우마을에 내재된 질서의 차이점

| 전통적 질서를 갖는 동족마을과 자연마을 | 새로운 문화유입으로서 교우마을 |
|----------------------------------|------------------------------------|
| 생태학적 동질성, 안정적이고 비이동성, 친족중심의 폐쇄성 | 생태학적 비동질성, 종교자유를 위한 이동성, 종교적 폐쇄성 |
| 유교적 가치관에 따른 위계질서와 제사 | 종교의례와 전례에 따른 위계질서 예배 |
| 상호공존하는 경제적 관계의 노동공동체 | 공동노동, 공동분배의 경제적 평등 관계 |
| 교육적 측면에서 서당, 서원 | 교육적 측면에서 공소강당, 성당 |
| 계층주의, 인간관계 규범, 서열적 혈연관계 관습적 신분질서 | 평등주의, 대부, 대모의 의례친족 평등적 신분질서, 지역공동체 |

오지은(1990)의 연구에서 나타난 천호마을의 사회·문화적 질서를 타 교우마을과 비교하면 천호마을에 내재된 질서는 토양특성상 옹기의 제작과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는 유사하다.

2. 교우마을의 건축

이동 교우마을¹⁴⁾의 건축물은 드러나지 않아야 했기에 대부분이 은폐를 목적으로 바위 밑이나 외진 곳에 나뭇가지를 엮어 만든 움막정도의 가건물에서부터 시작하여, 도기를 굽거나 화전을 일구는 등 생업이 안정되는 시기

3) 임경택(1989), 천주교 신앙촌의 사회적 성격에 관한 연구, 서울대 인류학과 석사논문, pp.73-92
 4) 최진성(1990), 전라북도 천주교 취락의 특성에 관한 연구, 최진성, 전북대학 지리교육연구, pp.47-48
 5) J. Douglas Porteous 저, 송보연, 최형식 역(1983), 환경과 형태, 명보문화사, pp.10-11
 6) 부족한 경지, 늘어가는 신자들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옹기집, 담배농사, 옹기장사가 대표적인 경제수단으로 나타난다. 초기에는 공동노동, 공동생산, 공동분배 방식을 취한다.

7) 임경택, 앞 논문, pp 73-92.
 8) 정승모(1983), 통혼권과 지역 사회체계, 한국 문화인류학, 5, pp.121-134.
 윤경숙(1990), 진안고원 천주교 교우촌에 대한 문화 지리학적 연구, 고려대 지리학과 석사논문, p.33
 9) 윤경숙, 앞 논문, pp.32-33
 10) 최진성, 앞 논문, p.51에서 표 3-4인용
 11) 채기병, 앞 논문, pp.38-51
 12) 오홍철(1994), 취락지리학, 교학연구사, P169에서 동족마을 성립요건을 1. 종교적 측면에서 유교적 사상에 바탕을 둔 선묘수호와 제사 중시 2. 사회생활에서 혈연의식 강화 3. 경제적 측면의 상호공존 4. 교육측면에서 서원 등의 분류하였다.
 13) 진 정(2001), 도시근교 농촌거거의 사회·문화적 변화와 건축적 대응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박사논문, 2001, p.37
 14) 윤경숙, 앞 논문, pp.18-20에서 신유박해 이후 19세기 말까지는 향촌사회와 갈등으로 일시적으로 머무는 단계의 마을로 정의하였다.



사진 1. 초기 웅기촌의 모습

에 이르러서야 현지에서 구하기 쉬운 재료를 이용하여 정착된 건축물로 나타난다. 또한 교우마을 건축특성은 초기 공소강당 기록이나 <사진 1>의 웅기촌 사진을 통하여 그 당시의 건축재료, 형태 및 내부 공간 등이 파악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는 전례법상 신부가 일어서서 미사를 드려야 하므로祭臺가 필요하다. 이에 신자집의 안방벽장을 깨끗이 치우고 도배하여祭臺로 사용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산간지역 주거건축에 벽장보다는 시렁이나 선반이 이용되는 것과¹⁵⁾는 차이점을 갖는다. 초기 교우마을의 주택내부 벽장공간은 종교적 필요성이 직접적으로 건축공간에 대응된 것이다. 초기에는 신부가 교우를 등지고 미사를 봉헌하기에 벽장을祭臺로 사용¹⁶⁾할 수 있었으며, 제대가 있는 안방에 남자가 앉고 여자들은 건너 방에서 미사를 드리는 방식으로 남·여 공간분리가 엄격하게 구분되었다. “새실에서 공소를 보았다. 집은 아주 낮았고, 또 아주 낡았다. 미사를 드리면서 제대를 똑바로 세우기가 힘들었고, 주교관을 쓰기 위하여 방가운데 있는 대들보 위에서 작은 공간을 찾을 수 있었다.” 라는 기록을 통해서 그 당시 주거건축의 형태, 구조, 재료 및 기술수준의 열악함을 파악할 수 있다.

초기 교우마을 건축은 주거건축과 종교시설이 분리된 형태가 아니라 특정한 주택 하나를 정하여 종교와 생활이 함께 이루어지다가 별도의 공소강당이 건립됨에 따라 주거와 종교생활 공간이 분리된 마을형태로 변화된다.

초기 공소강당은 지도급 신자의 집, 공소회장 집, 또는 별도로 마련한 건물을 이용한 기록을 보면, 주택과 유사한 건축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공소강당은 서로 인접한 공소들 중 가장 중심이 되는 곳에 위치하며, 신부와 그 신부를 보필하기 위하여 따라온 복사를 위한 방과 예배를 위한 강당¹⁷⁾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드망즈 주교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초기 공소강당건축에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공소강당은 어느 누구도 주거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정하고, 교우들의 공동 기도 장소나 전례를 행하는 장소로만 사용¹⁸⁾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공소강당 건축은 재료, 규모, 형태, 그

리고 공법 면에서 보면 주거건축보다 웅장하고 고급의 기법이 적용되고 있으며, 주거와 종교공간을 엄격히 분리시키고 있다.

도로망이나 가옥구조, 지붕재료, 경지구획 등에 있어서 일반마을과는 별반차이가 없지만, 공소강당이나 성당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는 점과 묘지경관¹⁹⁾이 다르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갖는다.

근대화과정에서 나타난 사회변화로 인하여 신자의 감소, 젊은이들의 부재, 도로와 교통시설의 확충으로 공소강당의 기능과 역할이 점차 감소됨에 따라 공소가 폐지되거나 통합되어 신자가 공소강당과 본당을 번갈아가며 전례를 참례²⁰⁾하는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

서지학적 고찰로 본 교우마을 건축특성은 그 시대에 적합한 재료와 기술을 이용한 건축형태로서 공동체에 내재된 문화적 가치가 직접적으로 건축에 대응되고 있는 것이 파악된다. 또한 근대화과정에는 신앙공동체에 내재된 종교적 질서가 약화되거나 해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II. 천호마을 사례조사

1. 역사적 배경 및 사회·인문적 환경

전라북도 완주군 비봉면 내월리(內月里)의 연혁은 본래 고산군 서면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이 통·폐합됨에 따라 내월리, 천호동, 명곡리, 동리와 소농리, 송치리의 각 일부와 북상면의 명곡리를 병합한 것으로 전주군 비봉면에 편입되었다. 천호마을²¹⁾은 전라북도 완주군 비봉면 내월리에 소속된 5개의 자연마을 중 하나이며, 카톨릭 행정구역상 전주교구 고산본당 관할 20공소 교우마을이다.

천호마을 주변 환경은 반촌동족마을로서 고흥유씨 동족마을인 동리, 명곡리, 고흥유씨와 창렬 조씨 2개 성씨로 구성된 중리와 내월 리가 있다.

주변마을과 교류는 종교적 차이로 인하여 일제시대 신작로가 건설되면서부터이지만, 본격적인 교류는 1970년 후반, 특히 1983년 이후 순교자 묘지로 천호마을이 개발되면서부터다. 도로망의 변화가 마을공간에 직접적으로



사진2. 초기마을위치 사진3. 마을입구 사진4. 순교자묘지입구

15) 완주군지(1996).

16) 김진소, 앞의 책, p.560, p.814

17) 김진소, 앞의 책, p.560, p.815

18) 김진소, 앞의 책, p.560, p.816

19) 채기병(1993), 내포지방 전주교 교우마을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지리교육전공, p.32

20) 김문수(1997.5), 홍승재, 대전교구공소의 변화과정과 건축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p.135

21) 완주군지(1996), p.285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천호마을은 1840년을 전후로 하여 충청도와 경기도 지방에서 전라도로 피난 온 교우들이 천호 산을 은신처로 삼아 10여명이 모여 살면서 형성된 마을이다. 초기 마을은 현재 위치보다 산 위쪽인 포강 주변의 대숲(사진2)에 위치하였으나, 1960년 이후 주택들이 산 아래로 내려와 현재 공소강당 주변과 마을가게가 있는 도로주변으로 이동되었다.

구성원간의 인간관계는 타 교우마을과 같이 의례친족 관계로서 종교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도시화 이후 구성원 감소와 노령화로 공동체특성이 약화되었다. 추석이나 설날 같은 전통적인 명절은 미사를 드리는 종교 의례 행위로 변형되었으며, 6월 29일은 주보성인인 바르틀메오 축일로서 행사가 이루어진다.

초기 천호마을은 공동소유, 공동노동, 공동분배에 의한 경제적 평등이 이루어졌지만, 1941년에 공소조합 임야를 분배하는 과정에 토지를 교회에 헌납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으로 나누어지면서 경제적 차이가 나타난다.

마을구성원간의 경제적 차이는 1970년대 이후 이촌향도, 시설 재배법의 도입, 화폐가치의 중요성 그리고 피정센터 건립으로 인하여 피정센터 주변의 공소소유 토지를 임차할 수 없게 됨으로서 심화되었다.

마을구성원의 주업은 논농사 일부, 시설재배(수박) 및 소규모의 가축사육으로서 경제력이 비교적 미약한 편이다.

1970년대에는 약 80여 가구 300여명으로 규모가 큰 마을이었지만, 1989년에는 35호 100여명, 현재는 약 29호 80여명으로 모두 천주교 신자로 구성되어있다.

타 종교인이나 외지인이 천호마을에 이주하는 것에 마을주민은 부정적이다. 또한 천호마을 사람은 낯골당이 마을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거부감 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천주교인 묘지가 마을 안에 들어오는 것에도 반감을 갖는다. 이는 천호 마을공동체의 종교적 특성과 지역적 폐쇄성이 마을내부의 질서로 드러난 것이다.

1936년 기해박해 100주년을 맞이하여 천호 산에 묻혀 있는 손선지 외 7인의 무덤 앞에 대리석으로 된 비석과 십자가를 세우는 축복식을 가졌으며, 마을주민은 축복식 1년 전부터 순교자들의 묘지 주변부에 그들의 묘지를 조성하고 그곳에 묻히기로 결정하는 등 성지화 작업²²⁾을 통하여 인근마을과 다른 경관뿐 만 아니라 순교자 마을로서 자긍심을 갖고 있다.

2. 마을배치와 현황

공소강당, 마을회관 및 도로를 중심으로 한 현 마을배치는 集村형태로 구성되어있다.

마을형성I기는 1840-1940으로 교우마을 공동체의 형성 시기로서 빈곤하지만 공동노동, 공동생산·분배가 이루어지며 포강의 대밭주변에 마을이 위치한 시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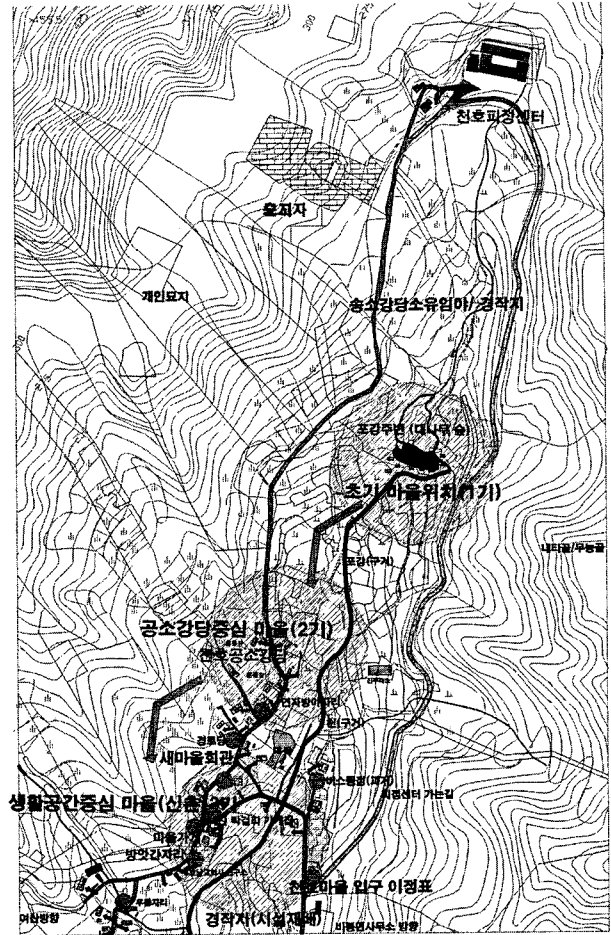


그림 1. 천호마을 배치변화

공소강당을 주택이 둘러싸는 1960년의 공소강당 중심 II기는 1940-1975이며, 이 시기 교우마을은 토지분배과정에 따른 빈부격차가 발생하며, 마을이 확장되고 성장한다.

일상생활과 종교영역이 구분되는 1976-현재까지의 III기는 새마을 운동에 따른 마을 공간변화, 친족집단간의 내분과 공동체의 재생노력, 성지마을로 인정, 시설재배 및 화폐가치 중요성이 확대되는 시기이며, 또한 마을 인구수가 감소되고 노령화로 인하여 교우마을이 해체되는 시기이다.

천호마을의 주거지가 변화되는 과정 I, II, III기는 <그림 1>과 같다.

I기 배치특성은 현 천호 공소강당(1916)보다 윗부분의 골짜기 안쪽에 신앙을 지키기 위한 은신처로서 형성된 마을이며, 공소강당 건립이전까지는 마을주거와 종교공간이 혼재되어 있었다.

공소강당이 갖는 지리적 특성은 마을중심에 위치한다기보다는 인근 교우마을과 교류가 편리한 중심적 위치로서, 인근 교우마을이 천호 공소강당을 둘러싸는 형태로 나타난다.

II기 배치특성은 공소강당주변으로 주거지가 이동하는 과정에 포강주변에 위치한 I기 마을이 사라진다. 공소강당이 물리적으로도 마을중심공간이 되는 마을배치형태로

22) 김진소, 앞의 책, pp.961-962

변화된다. II기 역시 주거공간과 종교공간은 엄격히 분리되고 있다. 외부 교우마을에서 공소강당주변으로 주거지를 이동하는 경우도 나타난다. 마을내부 영역은 남·녀의 성에 따른 노동영역이 구분되며, 공소나 성당 참례시에도 남·여에 따른 좌석 구분이 지속되고 있다.

III기 배치특성은 주택이 정류장 주변도로변으로 이동함에 따라 마을회관과 가게를 중심으로 한 일상의 집축이나 정보교환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중심공간과 공소강당을 중심으로 한 종교 의례공간으로 분리된다.

새마을운동에 따른 행정력은 마을의 단위공간에 영향을 미쳐 마을내부 길의 확·포장, 건축형태, 평면유형에 변화를 미칠 뿐 만 아니라 새마을회관 등이 건설되어 마을배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근대화과정에서 도로망의 변화, 화폐중심의 경제관이 내부공동체에 유입됨에 따라 일상생활의 현실적인 측면이 종교적 가치보다 우선하는 마을배치로 변화되는 내부질서가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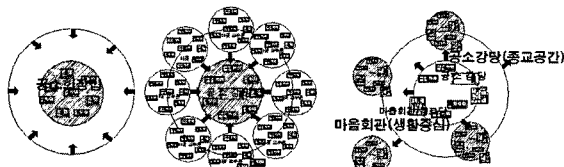
교우마을의 공간구성요소인 공소강당을 전라북도의 다른 교우마을의 공소강당²³⁾ 위치와 비교하면, 천호마을의 공소강당 역시 신앙공동체를 상징하는 건축물로서 마을 중심공간으로 나타나는 것 뿐 만아니라 물리적으로도 마을중심이나 높은 곳에 위치하는 배치특성을 갖는다.

공소강당이 시각적으로 잘 보이는 위치나 높은 장소에 입지하는 것은 신앙공동체 마을의 내부질서가 공소강당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공소강당을 중심으로 주거지가 모이는 I, II, III기의 건축현상은 <그림 2>와 같이 정리되며 다음과 같은 배치특성을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

공소강당을 중심으로 주거지가 모이는 것을 1차적 집촌현상이라 하면, 공소강당이 있는 마을을 중심으로 교우마을이 결집되는 것은 2차적 집촌현상으로 해석된다.

I, II기의 건축공간은 이중적 집촌현상이지만, III기의 건축공간에서는 이중적 집촌현상이 와해되고 있다. 이중적 집촌현상이 해체되는 원인은 마을내부의 종교적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반면에 일상생활이 강조되는 내부질서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1.기 교우마을 형성기 II.교우마을 정착기 III.현 교우마을 해체기

그림 2. 교우촌의 이중적 집촌현상

23) 최진성, 앞 논문, pp.40-41표

| 공소위치 | 교우마을 내부 | | 교우마을 외부 | 기타 |
|------|---------|-----|---------|--------------|
| | 중앙 | 주변 | | |
| 총수 | 26% | 11% | 10% | 5%(공소 없는 마을) |
| 비율 | 56% | 21% | 19% | 4% |

천호마을 공간구성요소를 전통적 가치관에서 발생한 자연마을이나 동족마을의 공공시설물, 특정한 장소 등의 공간구성요소와 비교한 <표 2>의 내용을 분석하면 천호마을 공간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로, 자연마을에서 나타나는 성황당, 신당, 정자나무

표 2. 천호마을 공간구성요소

| 분류 | 천호마을 | 비고 |
|-------------|-------------------------------------|----|
| 농촌마을공동체 시설물 | 사랑방/동각/모정/정자나무공간 | X |
| 동족마을공동체 시설물 | 종택/제실/유교적 상징공간 | X |
| 두레공동체 | 장례/예혼/농악기구 | X |
| 마을공동체 | 상징당산/당집/성황당/신당 대신 공소강당(천주교) | 0 |
| 방앗간 | 연자방아(1970년대까지 존재)- 정미소 | 0 |
| 공동우물 | 계곡 주변부 이용-마을내부 | 0 |
| 대장간 | 존재하지 않음 | X |
| 종교건축물 | 공소강당(1916년) 축복식 | 0 |
| 마을회관(노인정) | 1976년 새마을회관 2000년경 이후 정부지원으로 경로당 신축 | 0 |
| 옹기점 | 토질이 척박하여 불가 | X |
| 마을가게 | 마을가게(2). 막걸리 집으로 부름 | 0 |
| 교육시설 | 서당/서원/향교 대신 공소강당 | X |
| 담화장 | 공소강당이나 마을회관 이용 | 0 |
| 목욕터 | 계곡물과 집안 | 0 |
| 빨래터 | 냇가 | 0 |
| 묘지 | 신앙공동체의 개인 or 공동묘지(주변임야) | 0 |
| 연료림 | 공소강당소유 주변임야 | 0 |
| 경작지 | 소·자작, 시설재배(일부 공소소유임야 임차) | 0 |
| 담배. 건조장 | 집안+집밖 1980년 이후 사라짐 | 0 |

등의 공간요소가 없으며,

둘째로, 호남지역의 두레공동체 특성이 반영된 집회·모임장소인 정자나무나 모정건축이 존재하지 않는다.

셋째로, 유교의례공간인 제각, 향교, 사당, 서원, 서당 대신에 천주교 신앙공동체의 종교공간인 공소강당을 갖는다.

TG Jordan, L Rowntree(1986)가 예배공간에서부터 묘지, 가옥, 지명 또는 마을의 패턴이나 마을경관까지 종교가 영향²⁴⁾을 미치고 있음을 밝힌 바와 같이 천호마을 건축공간도 공소강당이나 묘지, 지명 등을 통하여 종교영향이 드러나고 있음을 천호마을의 배치변화를 통하여 파악된다.

3. 주택배치와 건축현황

천호마을의 주택배치 및 좌향은 대체적으로 남, 남동향이며, 부속사를 본채보다 낮게 위치시켜 통풍, 시각 및 채광에 대해 배려하고 있는데, 이는 산간지형의 입지조

24) TG Jordan, L Rowntree, (1986), op. cit, p.197.

건에 적절하게 대응한 건축현상이다.

I, II, III기의 평면변화, 내부공간의 확장, 재료변화에 따른 형태 및 건설방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은신처의 성격이 강한 I기의 주택평면은 대부분이 2칸의 초가로서 방과 부엌으로 구성되며, 마루나 토방이 없다. 신앙을 지키기 위한 은신처에서 시작한 주택은 저렴한 건축기술과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재료들이 사용되었다.

박해기의 주택은 미사를 드리기를 위한 공간으로 일부 주거에서 벽장이 존재하였지만, 신앙 자유기 또는 공소강당이 건립됨에 따라 주택내부에서 서서히 벽장이 사라지는 특성을 갖는다.

II기 주택평면은 대다수가 3, 4칸의 평면구성을 갖는다. 4칸의 주택평면구성은 부엌의 옆에 사랑방을 덧대고 방 옆에 방을 한 칸 더 덧대는 방식으로 변형되는 경우와 신축된 형태로 나타난다. II기 주택평면유형의 특징은 부엌 옆에 방을 덧대거나 확장하여 사랑방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다.

가공한 각재의 목재를 사용한 주택 주인은 이를 자랑하는데, 이러한 건축현상은 개인의 경제력이나 신분을 상징하는 주택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가족수의 증가, 농업생산력의 증가 및 정부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부속사와 방을 확장시키는 방법은 II기 주택에 방을 덧대는 방법, 부속사를 본체에 부가하는 방법 또는 주택의 벽을 담장부분까지 확장하는 방식으로 나타나 ㄴ, ㄷ자의 주택배치로 나타난다. 핵가족화, 도시화 과정에는 부속사까지 확장되었던 주거기능이 상실되고 있다.

III기의 개량주택 평면특성은 사랑방과 부엌의 위치가 바뀌는 4칸의 평면유형을 갖는 것이다.

<그림 3>과 같이 마루를 확장한 내부공간은 도시주택의 거실과 유사하며, 또한 현관의 출입구 역할을 한다. 주거전면에 차양을 덧대어 마루를 거실로 확장시키고, 후면은 창고, 부엌, 욕실, 화장실 등의 필요공간을 부가하거나 덧대어 <사진 5>와 같은 형태로 변화된다. 이러한 확장방법은 신축주택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재래 부엌의 입식화 과정에 물을 주거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과 새로운 난방방식 등이 적용되고 있다.

새로운 재료가 적용됨에 따라 건축형태도 변화되는데, I기의 풀, 짚 등을 이용한 초가나 움막과 같은 지붕형태에서 II, III기의 주택은 슬레이트, 합석, 기와를 이용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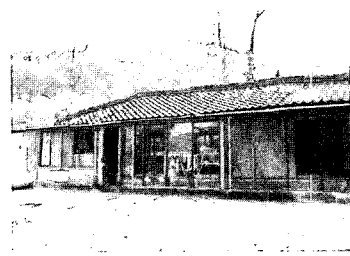


사진 5. 채양부가마루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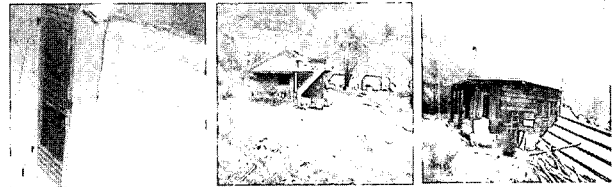


사진6. 재료혼용 사진7. 형태부가 사진8. 재료의 감춤

지붕으로 개량되었다. 벽돌, 블록, 콘크리트 조 신축주택은 평 슬래브 지붕으로 변화되었고, 개량주택의 본체는 우진각, 팔작지붕으로 변화되는 반면에 부속사는 맞배지붕으로 변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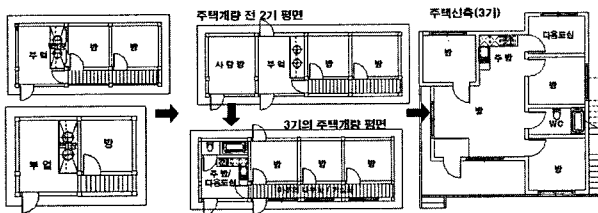
벽체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흙과 목재가 이용되었고, 증축이나 개량하는 III기 주택은 기존의 흙벽 위에 시멘트를 바르거나 부분적으로 블록 또는 다른 재료를 첨가하는 방식이 적용되는데, 이러한 모습은 <사진 6, 7>과 같이 나타난다.

<사진 7>은 기존 건축물에 새로운 재료를 이용한 건축형태가 부가되는 모습으로 증, 개축시의 형태변화를 단편적으로 표현한다. 사진8은 주택을 신축하기 보다는 기존주택 옆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주거공간이 확장되는 모습이며, 컨테이너 박스의 본래 재료를 감추는 경우이다.

담장 역시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돌이나 흙, 생울 등을 이용한 재료에서 시멘트나 블록을 이용한 담장으로 변화된다. 도로포장, 가벽, 채양 및 부속채 확장에 이용된 재료가 담장의 일부분에 적용됨에 따라 높이도 변화되고 있지만, 주변동족마을에서 나타나는 솟을대문이나 꽃담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마을의 주택 반 정도에는 담장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러한 이유를 마을주민은 도둑이 없는데서 찾고 있다. 도둑이 없는 이유는 가난하기에 훔쳐갈 물건이 없기도 하지만 교우마을인데서 찾고 있다. 마을공동체의 내부질서가 담장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증·개축, 신축하는 건설방법은 본인이 재료를 건설 기술자에게 공급하여 건축하는 과정 또는 건설업자가 제시된 조건에 맞게 건축하는 과정에 건축주의 의사가 반영된 건축형태나 평면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건설과정은 친척, 이웃 등의 의견이나 도움이 포함되는 개방적인 설계과정이나 건설과정이지만, 전문건설기술을 확보한 기술자



마을형성 1기 공소강당중심 2기 생활+중교분리 3기

그림 3. 천호마을 평면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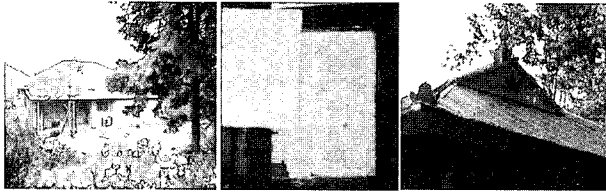


사진 9. 지붕면 십자가장식

사진 10. 벽면 십자가 장식

사진 11. 박공면 별 장식



사진 12. 공소강당 전면

사진 13. 공소강당 부속건물

사진 14. 천호마을 주택모습

에 의한 고급건축의 개념은 아니다.

종교를 상징하는 장식적인 요소가 주택개량이나 보수 시에 적용된 경우는 <사진 9, 10, 11>을 통해서 파악 할 수 있다.

<사진 9>와 같이 “지붕면에 십자가를 장식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마을주민은 “그 집은 신부님집이니까”라고 반응한다. <사진 10>은 주민들이 천호 공소강당 벽면 보수 시에 십자가를 장식한 것이며, <사진 11>은 주거지붕 개량 시 박공벽면에 별이 장식된 것이다. <사진 12>는 공소강당의 지붕재료가 기와를 이용한 팔작지붕에서 함석을 이용한 팔작지붕으로 변화되는 과정에 붉은색 페인트가 칠해진 경우이다.

이러한 예를 통해서 보면, 주민들이 의식적으로 종교적 상징을 주택에 적용하지 않기에 일반마을의 주택평면이나 형태와 많은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접근될 수 있다. 그렇지만, 주민들은 무의식적으로 신자와 신부라는 신분을 구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교건축물과 주거를 구분한다. 또한 마을구성원은 종교적 상징이나 가치를 무의식적으로 색채나 장식, 그리고 건축행위를 통하여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신축주택의 대다수는 개인소유 토지에 건설되었으며, 2-3가구 정도만이 공소소유의 토지위에 신축한 것으로 나타난다. 공소강당 소유의 토지에 건축된 대다수의 주택은 개량이나 증축행위로 나타난다. 공소강당소유 토지에 건립된 주택 소유주는 1년에 쌀 2말 정도의 도지료를 현재에도 공소강당에 납부하고 있는데, 과거 일꾼의 1년 품삯이 쌀 2가마니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부담이었다고 증언한다.

신축 및 개량주택에서 나타나는 건축행위 차이는 개인이나 마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것 뿐 만 아니라 대지 소유주가 누구인가에 따라 건축행위가 다르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다. 개인의 경제적인 측면 중에서, 소유관계가 직접적으로 건축형태에 대응된 것이며, 이는 일상생활에서 화폐가치가 중요하게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진 12>와 같이 공소강당은 신자만을 위한 정면 출입구와 신부를 위한 출입구를 후면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종교적 위계질서를 드러내고 있다. 가공한 목재가 이용된 공소강당 건축은 정면 3칸 측면 7칸으로 비교적 고급기술이 적용된 익공형식이다. 공소강당의 부속건물<사진 13>은 본 건물보다 크기, 규모 및 구조적인 면에서 한 급 낮은 건축 재료와 기술이 적용되었다. 공소강당

건축은 주거건축이나 부속건축에서 사용된 재료, 형태, 구조 및 기술적 측면에서 보다 고급건축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건축행위를 통하여 마을공동체의 종교적 가치가 직·간접적으로 건축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드러낸다.

낡은 공소강당을 새로 신축 또는 개량하고자 하였지만 교구에서 허락하지 않아 신축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불평한다. 이렇게 된 원인의 하나를 한 주민은 마을구성원이나 공소회장이 가지고 있던 자치권이 교구로 이전 된 데서 찾고 있다.

자치권의 변화가 의미하는 것은 마을공동체의 종교적 가치가 약화된 것을 의미하는 것 뿐 아니라 초기 종교공동체의 질서가 조직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IV. 천호마을의 건축 공간

1. 종교적 가치를 드러내는 상징적 건축공간

천호마을 건축현상을 종교적 상징으로 접근하면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엘리아데는 성소개념에 대하여 어떤 장소를 변용하고 특수화하여 주위의 세속적인 공간으로부터 분리함으로써 그 장소에 성의 현현을 반복시키는 현상²⁵⁾이며, 성인들이 살거나 문헌 장소에 울타리나 돌을 쌓는 건설행위를 통하여 세속적 공간과 분리²⁶⁾시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천호마을의 경우도 위와 같은 행위를 통하여 주거공간과 공소강당이나 순교자 묘지를 분리시켜 성스러운 공간으로 만든다. 공소강당과 그 주변부인 주거공간을 분리시키는 건축현상을 통하여 세속적인 공간으로부터 성스러운 공간을 구분하려는 그들의 종교적 가치가 드러나고 있다.

종교는 궁극적 실재가 파악 될 수 있는 성소공간이라는 특수한 공간이 요구²⁷⁾되는데, 천호마을의 경우도 종교적 실재를 드러내기 위하여 의례장소인 공소강당을 통해서 궁극적인 실재를 드러낸다.

김문수, 홍승재(1997)의 연구²⁸⁾, 최진성(1990)의 연구, 그리고 홍순명, 홍대형(1991)의 연구결과를 보면, 본당구역의 중심지, 탁월하게 높은 곳, 옛 교우마을이나 순교지

25) M. 엘리아데, 이 은봉 (1996) 역, 종교형태론, 한길사. p.472

26) M. 엘리아데, 앞 의책, p.474.

27) 林田慶一, 양광용 역(1985), 건축론, 동지사, p.37.

28) 김문수·홍승재(1997.5), 대전교구 공소의 변화과정과 건축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p.136

같은 역사적인 곳에 공소강당이 입지²⁹⁾한다. 천호마을의 경우도 공소강당이 주변 교우마을 중심에 위치하며, 마을내의 주거지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는 장소적 특성을 갖는 것은 다음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공소강당을 높은 곳에 위치시키는 장소성은 성현의 공간으로서, 그리고 위로 향한 출구³⁰⁾로서 상징적인 장소나 높은 곳에 입지시키는 건축행위로 나타나는 것이다.

성스러운 공간이 성의 현현을 통하여 인간에게 계시되지 않는 경우는 인간 스스로가 건설³¹⁾하듯이 천호공동체의 경우에도 주거와 종교시설, 교우마을과 비교우 마을, 높은 곳-낮은 곳, 성-속의 위계질서를 통하여 마을공간을 분리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천호마을 건축공간은 종교적 가치규범에 의해 종교와 비 종교공간으로 분리됨으로서 동족마을이나 자연마을과는 다른 종교적 가치를 드러내는 상징적 건축공간으로 건설되는 것이다.

2. 복합적이고 이중적인 건축특성

천호 교우마을 공간과 건축물은 전통적인 농촌마을 특성, 근대화과정에 나타나는 도시적 특성 및 종교적 가치가 반영되어 복합적이고 이중적인 건축특성을 갖는다.

증·개축 및 신축하는 주거건축은 개방적인 건설과정으로 비 건축가에 의한 건설행위로서 부가하거나 첨가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건설행위에는 생활상이 반영된 어휘로서, 개인의 경제력을 상징하는 건물로서, 신분을 상징하는 건물 그리고 장식과 색채를 통한 종교적 상징 등이 드러난 복합적인 건축특성을 갖는다.

공소강당 건축과 주거건축에 사용된 재료, 구조, 형태 차이를 분석하면, 주거건축보다 공소강당이 고급 건축으로서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 주어진 물리적인 조건 내에서 보다 고급의 재료나 기술을 공소강당 건축에 적용시킴으로서 마을구원성의 종교적 가치를 드러내는 건축현상으로 해석된다.

그 시대에 주어진 재료나 환경조건에 대응하는 건축행위로 나타난 천호마을 주택과 공소강당의 건축특성은 아모스 라포트가 정의하는 토속건축³²⁾의 성격을 갖는다.

종교적 가치, 경제적 측면, 행정력 등의 사회·문화적 조건들이 천호마을 건축공간에 영향을 미쳐 근대화 이전과 근대화 이후의 마을공간구성은 다르지만, 주변마을과 유사한 경관을 갖는다. 이와 같은 건축현상은 다음과 같

은 건축특성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접근된다. 주변과 유사한 경관을 갖는 이유는 새로운 건축재료, 기술, 구조 등이 적용될 때 기존의 건축형태나 주변건축물을 참조하는 방식으로 마을구성원의 내부질서가 지속, 변형되고 있는데서 찾을 수 있다.

주변마을이 새로운 재료의 사용에 따른 색상 및 형태 변화, 건축구조, 건축물의 층수, 박공 또는 경사 지붕에서 평 슬래브 지붕으로 형태가 변화되었듯이 천호마을의 주택, 마을회관, 공소건축 역시 주변의 건축물과 유사한 형태를 갖는다. 이러한 건축현상은 그 당시의 사회·문화적 특성 또는 주변 환경의 물리적 맥락(context)³³⁾이 천호마을 건물형태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통적 사회질서에 새로운 종교질서가 유입된 교우촌의 건축공간 역시 근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 주변 환경과 유사한 형태를 가진다. 이는 당시의 문화현상 속에서 신앙공동체에게 필요한 부분만을 선택한 결과물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구성원 그들에게 필요하고 적합한 것을 선택하고 대응하는 과정에 나타난 건축현상은 로버트 벤츄리가 설명하는 문화적 가치 속에서 위계질서가 반영된 적합성의 건축특성을 갖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3. 공동체 가치를 드러내는 건축공간

현연사회의 제층적 특성을 반영하는 동족마을³⁴⁾이나 토속신앙 공간³⁵⁾을 갖는 자연마을은 마을의 경계나 입구가

33) context에 관련된 물리적 인자들은 주변 환경의 물리적 상태에 관계한다. 물리적 상태는 대지자체의 자연적 조건, 즉 대지의 형태, 지세, 기후, 경관, 자연적 색조 등으로 이루어진 자연적 요소와 사람이 인위적인 활동에 의해 형성된 환경으로서 주로 디자인 요인들로 구성된 인공적인 요소로 되어있다. 이러한 인공적인 주변요소로는 주변 건물의 스케일, 재료와 색, 비례, 매스와 볼륨, 스카이라인, 건축물의 높이, 건물의 입면, 장식, 그리고 건축물들과 그 사이 빈 공간으로 구성되는 도시적 구조로 구성된다.

진 정(1992,8), 현대 미국건축의 Contextualism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27권 113호 pp.37-38

34) 동족마을은 종가나 재실을 중심으로, 종가의 사당이나 재실은 선조들의 기념물로서 후손들의 집회장 역할을 한다. 사당이나 재실에서 행해지는 모임은 대체적으로 종교적 의미를 갖는 축제의 미로 제사, 조상에 대한 추모의식 뿐만 아니라 계절의 사이클, 농경활동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동족마을의 공간구성은 성리학 질서에 따른 신분적 위계에 따른다. 마을공간의 중심은 마을의 종가가 위치한 장소가 중심공간으로 마을의 뒷부분에 위치한다. 중심성이라는 위계적 개념이 전 후로 나타나는 반면에 기독교사회의 도시는 중심과 주변이라는 물리적 개념으로 나타난다. 동족마을의 특성은 상향적 위계성과 유교문화공간으로서 무속신앙 구조물이 없는 것으로 설명된다.

한필원(2004), 한국 전통마을을 가다 1, 북로드, pp.16-23.

최영준(1999), 국토와 민족생활사, “동족촌의 구조적 특성과 문화” 한길사, p.360.

박명덕, 박인곤(1991.8), 조선중기 동족마을의 종가 확산과 성립과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 p.11.

35) 정영철(1997.2), 가정신앙구조로 본 전통주거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안기상(1989), 자연부락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청주대 석사논문, 건축과.

29) 홍순명·홍대영(1991.2), 한국 개신교 교회건축의 유형분석에 관한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p.152. 인용

30) M.엘리아데, 이은봉(2001)역, 성 과 속. 한길사, pp.40-43.

31) M.엘리아데, 이은봉(1996)역, 종교형태론, p.490.

32) Amos Rapoport(1997), 주거형태와 문화, 열화당. 토속건축은 경제적수준이나 기술적 발전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의 건축과정 차이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토속건축이란 건축물의 건설과정에서 건축주들의 참여자가 직·간접적으로 이루어진 건축과정으로서 비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지며, 내용은 그 사회의 관습, 전통, 가치관 등의 생활상이 표현된 공통적인 설계어휘를 가지며, 고립문화가 아닌 상호의존적인 개방적인 건축으로 설명된다.

되는 어귀, 마을의 중심인 공동 공간, 마을수호신 격 혹은 선조의 사당이 있는 의례공간으로 구분된다. 동쪽이나 자연마을공간이 위치, 기능 및 상징에 따라 마을입구를 하당, 마을의 중심인 장소를 중당, 마을의 성소를 상당³⁶⁾으로 분류하는 것과 달리 천호마을 건축공간은 종교적 가치사유를 바탕으로 마을공간이 재구성되는 과정을 통하여 공소강당이 마을의 중심부이고, 나머지는 주변부라는 성과 속의 종교적 위계질서를 드러낸다.

천호마을 건축공간은 동쪽마을의 유교적 공간이나 자연마을의 토속적 공간이 가지는 상당, 중당, 하당이라는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공간개념과 달리 서구적 개념의 중심부와 주변부라는 물리적 개념³⁷⁾의 공간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물리적 개념의 중심부는 2차적 집촌현상에서도 적용된다.

기존의 가치질서와 다른 종교문화를 바탕으로 발생한 천호마을이지만 전통적인 가치관의 공간이나 영역이 존재하고 있다. 마을회관, 공소건축의 예배 공간에서 이용자에 따른 남·여 구별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마을회관이나 공소강당 이용 시 청·장년층과 노년층이 이용하는 공간이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구분된다. 또한 II기 이후 마을구성원의 경제력 차이가 심화되는 과정에 유교적 이념의 가족 묘지가 형성되는 점을 보면 기존의 전통적 유교적 질서와 서구적 신앙공동체의 가치규범이 융합·공존하는 질서를 드러내는 것이다.

새마을운동양식 건축물의 유입과 행정력을 상징하는 공공시설물이 유입됨에 따라 교우촌의 마을공간이 중심부와 주변부라는 개념이 변화하는데, 이러한 건축현상은 정부의 행정력과 현실적인 생활규범, 그리고 소유개념 등의 일상생활 가치가 종교적 가치보다 큰 영향력을 미쳐 마을중심이 분화되는 것이다.

III기의 마을공간은 마을공동체내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문화적 가치들 중에서 그들의 상황과 현실에 적합한 질서를 선택하는 과정에 나타난 건축공간으로서 마을공동체의 내부질서 변화를 담는 공간으로 재구성되어 구성원의 가치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V. 종합 분석

특별한 사회적 기대간의 결합에 따른 건축형태는 문화적 개념이 변화하는 과정에 기능이 사라져도 이전의 형

태만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예는 교구민에게 예배를 알리는 데 사용되는 종탑의 기능이 사라진 후에도 오랫동안 상징적으로 남아있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초기의 종탑은 그 당시의 문화적인 가치를 반영한 것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를 반영하는 어떠한 기준들의 효력이 없어짐에 따라 변화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건축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투자는 건물구조를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즉, 새로운 기준과 오래된 형태간의 불일치는 정치적으로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속³⁸⁾되고 있는 것과 같이 천호마을의 물리적 건축변화 속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종교적 가치를 반영했던 어떠한 기준들의 효력이 없어짐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변화의 필요성이 담겨진 건축공간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천호마을 I기는 신앙을 지키기 위한 은신처로서 그리고, 주어진 물리적 조건에 대응하는 건축형태와 서구적 가치질서를 담은 건축공간으로 드러난다. II기는 마을공동체의 종교적 가치가 드러나는 공소강당 중심의 건축공간으로, 그리고 III기는 정치적 변화와 근대화 과정에 새로운 가치관이 공동체에 내재된 기존가치관과 결합, 변형되는 과정을 통하여 또 다른 건축공간으로 변화된 시기이다.

교우촌의 건축공간에는 新·舊의 건축질서와 특성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으며, 형태적으로도 새로운 건축 질서(근대화, 서구 건축문화)를 수용한 결과로서 新·舊 질서가 공존하는 건축현상을 갖는다. 이러한 교우마을의 건축현상은 커티스(William. J. R Curtis)³⁹⁾가 의미하는 근대건축에서 지역성을 반영하는 토착화과정을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천호마을 공동체의 다양한 가치가 결합된 건축공간은 A. D. King⁴⁰⁾이 정의하는 제3의 복합문화를 갖는 토착화(indigenous) 현상으로도 접근 할 수 있다.

토착문화와 서구문화가 결합하는 과정을 통해 시대적, 사회·문화적 특성이나 공동체에 내재된 가치관의 변화를 드러내는 천호마을 건축공간은 오늘날 한국천주교회가 추구하는 전례의 토착화과정과 비교되며, 진정한 의미로

36) 김덕현(1991), 한국문화역사 지리학회, 한국의 전통지리사상, "유교적 촌락경관의 이해", 민음사, pp.209-210에서 유교적 공간 구성은 사머니즘적 토속적 문화와 불교적 유교적 문화가 누적되어 결합되어 토속적, 유교적 문화경관요소가 종속적으로 수용, 분리되어 존재한다. 토속적 경관으로 정자나무마당은 마을사람들의 통행과 접촉이 많고 집근성이 가장 용이한 높은 곳에 위치하며, 동체가 행해지며, 마을 내의 계층을 초월하여 일상의 생활정보가 교환되는 장소로 유교적 촌락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게 자리 잡고 있다. 유교적 경관은 종택과 소종가, 상징적 공간으로서 위계를 잘 드러난다.
37) 한필원(2004), 앞의 책, pp.16-23.

38) Setha M. Low, Housing, Culture and Design, 주거문화연구회 역(1994), 신광출판사, 서울, pp.263-282

39) 커티스는 지역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형의 표층만을 모방해서는 안된다. 또한 외부에서 들여온 것을 지역의 기후나 사회문화적 관습으로 통합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지역성을 확보하는 토착화 과정은 커티스는 新과 舊, 지역과 보편성사이의 참된 통합으로 새로운 지역성이 창출되어 간다고 본다.

William. J. R Curtis, 강병근 역 (1993), 1900년대 이후의 근대건축, 화영사, pp.621-624, p.472

40) 장성준(1983), 주거의 발전을 위한 사회·문화적 접근, 대한건축학회. p.4에서 인용. A. D. King."Culture and Urban form " in A. rapport. ed, The mutual interaction of people and their built environment, Moaton, 1976, p51-76에서 A. D. King은 제1문화(기존토착문화)에 제2의 문화(서구문화)가 들어와서 제1도 제2도 아닌 제 3의 복합문화로 형성되는 것을 토착화(indigenous)현상으로 설명한다.

서 그리스도 복음이 한국문화 속으로 들어가는 과정⁴¹⁾과도 비교된다. 사회·문화변화 과정이 담겨진 I, II, III기의 건축공간을 R. J. Schreiter(1987)가 제시하는 토착화 유형⁴²⁾의 번역모델⁴³⁾, 적응모델⁴⁴⁾, 맥락적 모델⁴⁵⁾ 유형과 비교하면, 그 지역의 환경이나 그 상황에 적합한 형태, 기능, 평면 또는 마을배치로 변화된 천호마을 건축공간은 문화와 문화간의 상호관계를 잘 드러내는 토착화(Inculturation)현상으로도 해석 될 수 있다.

천호마을 건축공간은 초기 천주교 의례적 생활 즉 가치관이 반영된 공간과 유교적 가치관이 반영된 공간 그리고 근대화과정에 나타난 사회변화가 수용되는 장소로서 다양한 가치 질서가 융합된 복합적 공간인 것이다. 이러한 천호마을의 건축공간은 신앙공동체의 내부질서가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을 담은 문화적 산물로서 종합된다.

VI. 결 론

본 연구는 천주교가 한국사회에 전래되고 이를 수용하는 과정에 형성된 교우마을의 건축공간변화를 분석, 종합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1. 천호마을 건축공간은 신앙을 지키기 위한 초기 목적과는 달리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일상생활의 한 부분으로서 그들의 종교적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2. 천주교가 궁극적으로 한국사회에 뿌리내리기 위한 토착화 방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천호마을 건축

공간은 근대화과정에 나타난 정치, 사회, 경제 및 행정력의 변화과정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천주교가 한국사회에 뿌리내리는 과정을 담고 있는 건축현상인 것이다.

문화매개체로서의 건축특성을 갖는 천호마을 건축현상은 천주교가 한국사회에 뿌리내리기 위한 과정이 담긴 토착적 건축현상으로 건축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유교적 이념이나 가치관을 거부한 교우마을의 건축공간이 갖는 내용과 의미에 대한 연구사례이지만, 연구대상이 천호마을로 한정되어 있기에 모든 교우마을의 건축현상이라 하기에는 한계점을 가질 수 있다.

참 고 문 헌

1. 김진소(1998), 천주교 전주 교구사, 빅벨.
2. 김덕현(1991), 한국문화역사 지리학회, 한국의 전통지리사상, “유교적 촌락경관의 이해”, 민음사.
3. 김정주(1992), 역사전통과 교회와 선교, 한국 교회사 논총.
4. 김문수·홍승재(1997.5), 대전교구공소의 변화과정과 건축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5. 박명덕·박언근(1991.8), 조선중기 동족마을의 증가 확산과 성립과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6. 임경택(1989), 천주교 신앙촌의 사회적 성격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 서울대 인류학과.
7. 윤경숙(1990), 진안고원 천주교 교우마을에 관한 문화 지리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 지리학과.
8. 오홍철(1994), 취락지리학, 교학연구사.
9. 오지은(1990), 천주교 교우마을 공동체에서의 여성의 지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 인류학과.
10. 완주군지(1986).
11. 이승현·박시환(2000.7), 지역건축의 토착화 이론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2. 안기상(1989), 자연부락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 청주대 건축과.
13. 정승모(1983), 통혼권과 지역사회체계, 한국문화인류학, 5
14. 진 정(2001), 도시근교 농촌주거의 사회·문화적 변화와 건축적 대응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박사논문.
15. 진 정(1992), 현대 미국건축의 Contextualism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27권 113호.
16. 장성준(1983), 주거의 발전을 위한 사회, 문화적 접근, 대한건축학회.
17. 정영철(1997), 가정신앙구조로 본 전통주거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18. 채기병(1993), 내포지방 천주교 교우마을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 교육대학원, 지리교육 전공.
19. 최진성(1990), 전라북도 천주교 취락의 특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 지리교육전공.
20. 최영준(1999), 국토와 민족 생활사, “동족촌의 구조적 특성과 분화”, 한길사.
21. 홍순명·홍대영(1991), 한국 개신교 교회건축의 유형분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2. 홍승의(1994), 토착화 신학의 틀에 대한 이해 홍승의, 대구가톨릭대학원.
23. 한필원(2004), 한국 전통마을을 가다, 북로드.
24. Amemiya, T.(1985). Advanced Econometrics. Harvard University Press.
25. Amos Rapoport, 주거형태와 문화, 열화당
26. J. Douglas Porteous(1983), 송보연·최형식 역, 환경과 형

41) 김정주(1982), 역사전통과 교회와 선교, 한국교회사논총, p.657
 42) 로버트 슈라이더, 황애경 역(1991), 신학의 토착화, 가톨릭출판사, pp.28-46에서 번역, 적응, 맥락적 모델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Aylward Shorter. "Toward a Theology of Inculturation" Marynoll, Orbis book, pp.5-6를 인용한 강석진(1999), 한국인의 전통적 종교심성과 그리스도교 영성 토착화 연구, 가톨릭 신학대학원, 석사, p.78에서 문화와 문화간의 관계를 잘 드러내는 토착화(Inculturation)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토착화(inculturaion)란 문화에의 삽입(insertion in a culture)로 문화적응으로 해석한다.
 43) 번역방식은 본질적인 것을 문화환경에 첨가하여 새로운 상황에 맞게 번역하는 방식이다. 토착화의 적용이 문화양식의 심층을 파악하지 못하고 문화의 표면에 국한되는 단점을 갖는다. 토착문화의 본질을 파악 못하고 표피적 결합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홍승의, 앞 논문, pp.4-46
 로버트 슈라이더 앞의 책 pp.28-46.
 이승현·박시환(2000.7), 지역건축의 토착화 이론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에서 번역방식을 서구건축의 이식정도로 전통기와 담장을 그대로 대입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44) 적응방식은 번역방식보다는 문화를 진지하게 인식한다. 서구적 자료만을 해당문화에서 취하는 방식으로 서구인의 이해를 돕는 정도로 끝난다. 이러한 적응방식은 text를 성서, 성전으로 context를(문화의 상황화에 의한 체험이라 한다면 텍스트를 컨텍스트에 맞게 번역과정에 어느 한쪽을 중요시하는 경우는 열동적, 수구적 결합형태로 나타난다.
 홍승의, 앞 논문, pp.4-46
 로버트 슈라이더 앞의 책 pp.28-46
 45) 번역과 적응방식이 지식추구의 결과라면 맥락적 모델은 구체적인 민중의 생활 속에서 체험으로 얻어지는 작업-민중학 접근방식이다.
 홍승의, 앞 논문, pp.4-46
 로버트 슈라이더 앞의 책 pp.28-46

- 태, 명보문화사.
27. M. Eliade(1983), 이동하 역, "The Sacred and the Profane", 학민사.
28. M. 엘리아데, 이은봉 역(2001), 성과 속. 한길사.
29. M. 엘리아데. 이은봉 역(1996), 종교형태론. 한길사.
30. 로버트 슈라이더(1991), 황애경 역, 신학의 토착화, 가톨릭출판사.
31. 林田慶一. 양광용역(1985), 건축론, 동지사.
32. Setha M. Low(1994), Housing, Culture and Design, 주거문화연구회 역, 신광출판사, 서울.
33. TG Jordan, L Rowntree, 1986, op. cit .
34. William. J. R Curtis, 강병근 역(1991), 1900년대 이후의 근대건축, 화영사.

(接受: 2005. 3. 4)